



2020 시드니 국제 건축 및 인테리어 박람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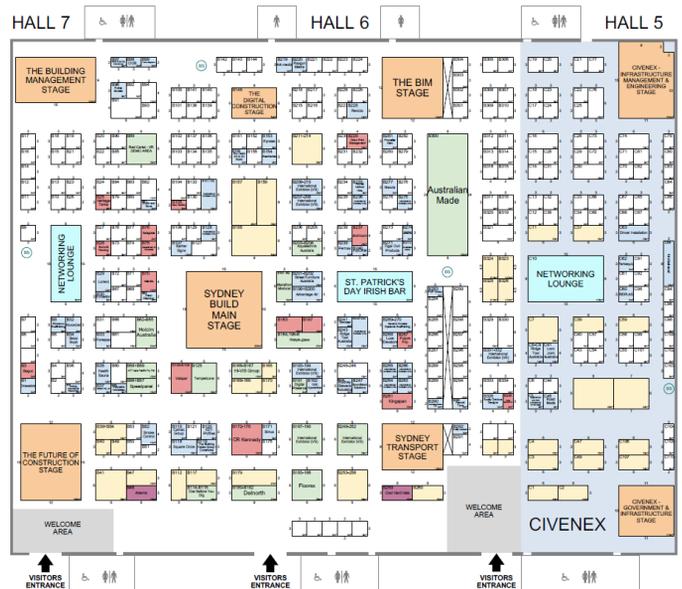
1. 전시회 개요

- 개최일시 2020년 3월 19일 - 20일
- 개최장소 SYDNEY - ICC SYDNEY (호주, 시드니)
- 전시규모 약 13,000sqm, 약 350개사, 약 25,000명 방문객, 약 60개사의 건축 파트너사, 300명의 전문 연사
- 웹사이트 www.sydneybuildexpo.com
- 주최기관 Oliver Kinross
- 전시특징
 -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내 최대 규모의 건축박람회로, 여러 분야의 리더들이 주관하는 많은 컨퍼런스 및 세미나가 열리며, 각 분야의 관람객이 많이 내방
 - 건축자재 뿐 아니라 인테리어 제품들이 많이 출품되며 매년 한국 업체의 참가가 증가추세
- 전시품목 인테리어 마감재, 외장마감재, 바닥재, 벽재 및 천장재, 지붕재, 창호재, 타일 및 석재, 욕실재, 조명, 주방관련, 페인트 및 코팅, 블라인드, 조경, 설계시스템, Security 시스템, 홈 오토메이션, 음향 및 전기제품, 스파, 가구 등.

- 부스가격 기본 패키지 부스

AUD \$7,425 / 9sqm (VAT 미포함)

(포함: 카펫, 벽체, 테이블, 의자 2개)



2. 지난 전시회 결과

- 개최일시 2019년 3월 14일 - 15일
- 개최장소 SYDNEY - ROYAL HALL OF INDUSTRIES - HORDERN PAVILLION (호주, 시드니)
- 전시규모 13,000 sqm, 262개 참가사, 15,445명의 등록 방문객

ATTENDEE JOB TITLES:

Owners / CEOs / Directors – 22%	Consultants – 6.5%
Senior Managers / Managers – 19%	Contractors – 6.2%
Architects – 9.7%	Tradies – 5.5%
Manufacturers / Suppliers – 9.5%	Engineers – 4.8%
Business Development – 7%	Project Managers – 1.7%
Designers – 6.8%	Developers – 1.3%

PRE-REGISTERED ATTENDEE FIGURES



3. 타켓 바이어

- 바이어 관심품목 Bathroom & Sanitary-ware, Kitchen, International Furniture Lighting & Led Lighting, Doors & Windows, Tile & Ceramics Flooring & Wall covering, Access control & Switches

■ 관련 최신 시장 동향

- 호주 정부는 1,000억 달러 규모의 10년 인프라 프로젝트 플랜을 세워 호주 전 지역의 공공 인프라를 개선 및 신설하고, 특히, 도로, 철도, 가뭄 및 수해 재해지원 등 신규 사회기반시설에도 추가 기금을 지원할 계획.
-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기를 띠며 따라 관련 자재 및 장비 시장이 개선 될 것으로 보이며, 일부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해외 기업으로부터 수주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우리 기업에도 기회로 작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.
- 신재생에너지 발전목표가 완료되는 2020년까지는 대형 프로젝트 위주로 5~6GW 용량의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 건설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
- OECD는 현재 진행 및 계획중인 호주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정부지원 및 공공투자가 호주 경제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전망함
- 한국은 호주로부터 전략 자원을 비롯한 철강, 자동차, 에너지 등 주요 수출품의 안정적인 원료를 확보함과 동시에 호주에 자동차와 첨단 전자제품, 가공품을 수출하는 이상적인 교역 파트너로 관계 구축



▶ 2019 SydneyBuild 박람회 사진